AFRICA CONTINENT MISSION

631/587 ST. MICHAEL ROAD P.O. BOX 302, MBABANE, KINGDOM OF SWAZILAND
TELEPHONE 268-2404-4638 FAX 268-2404-1170 CELL 268-7663-6546
E-mail: acmpsw@hanmail.net, acmcykim@hotmail.com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동역자님께,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아프리카 주민선교를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시는 선교 동역자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있으시기를 빌면서 선교보고를 드립니다.

2012년을 맞은지 몇일 전 같은데 벌써 3월말에 접어들어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중남 아프리카는 여름철이 지나 겨울 로 접어들어서 새벽기도 갈 때는 따뜻한 잠바를 입고 다닙니다.

이시드라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개척한 이시드라(Isidra) 교회 새벽기도에 수년 동안 오십 여명의 성도들이 모여 새벽마다 뜨겁게 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새벽기도인원이 삼십 여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기도의 열기는 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벽기도시간을 통하여 신구약 성경을 두 번째 읽어가고 있으며, 현재는 열왕기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새벽기도모임은 하루일과 중에서 가장 보람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은 개인적으로 30분쯤 기도를 한 후 몇 분의 평신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있으며, 성도들이 감동받은 구절을 읽고 저는 읽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한 후 매주 한 절씩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새로운 감동을 주시고 그 내용들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전에 체험하지 못한 생명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또 한 저에게 새벽기도 시간이 귀한 것은 7개국 현지인 동역자님들과 멀리서 원주민 선교를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시는 선교 동역자님들과 교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설립하신 교회, 학교, 병원, 고아원, 신학교 등의 사역을 위하여 중보 하면서, 그리고 그 사역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일입니다.

모잠비크, 남아공화국, 스와질란드 교회 건축사역

모잠비크 샤이샤이 Xai Xai 교회

홍순안 목사님이 섬기는 참빛교회 장로님의 후원으로 스와질란드의 Madonsa 참빛교회와 Ntontontozi 참빛교회의 건물이 완공되어 5월5일과 6일에 헌당예배를 드릴예정이며, 남아공화국의 Nelsprit지역에 빛으로교회(한상용 목사님)의 후원으로 공사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남아공화국의 Mayflower 지역에 노가대 선교회와 김순석 장로님께서 교회 부지를 구입 해 놓고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헌 **목사님**이 섬기시는 예본교회의 후원으로 건축 중인 Xaxai 예본교회가 완공되어 페인트칠을 준비 하던 중 태풍을 만나 함석지붕이 날라 갔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주 목요일 (3월16일) Xaxai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바다가 가까워 바람이 많은 곳이기에 34장의 함석판이 완전히 찢어진 종이처럼 못쓰게 됐으며, 함석을 받치고 있던 나무들도 부러져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교회당 옆에 현지인 담임목사님의 사택도 지붕이 날라 가고 주변의 나무들도 태풍으로 넘어져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혜준 형제(전 영어 연수생)의 가족들의 헌금으로 Macia 지방에 건축 중인 교회(예본 교회에서 50Km 떨어진 곳)를 건축하던 중 이번 태풍으로 물에 잠겨 공사를 중단시켰다가 지방정부의 배려로 교회건축 부지를 받아 새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영옥 선교사님 내외가 섬기는 태안 순복음교회의 후원으로 모잠비크 Milange 지방에 건축 중인 태안 순복음지교회는 말라위 국경선에 위치해 있는데,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여서 교회 건축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으나 사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건축을 담당한 James 목사님에게 사진촬영을 부탁하였습니다.

권오성 목사님이 섬기는 인천 큰빛교회 손가연 집사님과 의성믿음의집 후원으로 모잠비크 Maulane 지방에 지교회가 건축 중이며, 안봉웅 목사님이 섬기는 의정부 신광교회의 후원으로 모잠비크의 Macsava에 신광 지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신광 지교회는 2년 전 교회건축비를 보내 왔었는데, 스와질란드의 Lobamba에 교회 건축 중 스와질란드 왕이 소유한 부지라고 교회 건축 중단을 시켜서 그동안 기다리다가 안목사님의 허락을 받아 모잠비크 교회 건물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김금호 목사님께서 섬기는 안디옥교회 후원으로 모잠비크 선교농장 안에 안디옥 목회자 훈련원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훈련원을 마푸토 주에서 사역하는 현지인 목회자들의 영성훈련과 창대중학교의 기숙사로 사용하게 됩니다. 얼마 전 기숙사 건축비로 마석 기독병원장 이신 이응진원장님께서 일천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1985년부터 25년 동안 중앙아프리카 말라위에서 150여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라위 총회장으로 있는 Yasulu 목사님에게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새로 개척한 교회 현황을 알려 달라고 했더니 10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데 몇 년 전의 전체 교회숫자 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회를 개척했으면 전체 교회숫자가 늘어나야 하는데 비슷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매년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 건물이 없어서 예배를 집에서 드리거나,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의 없어지는 수와 새로 개척하는 교회 수가 비슷하기 때문” 이라고 답변을 해서 교회건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건축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는 모잠비크는 254개 교회에서 291개 교회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7개 교회가 개척되어 교회수가 확대됨을 볼 수 있어 교회 건축이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야 함을 실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면 계속해서 교회가 없는 아프리카 외진 곳에 건축사역을 꾸준히 진행시킬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학교 사역(정은영 선교사 사역보고)

2012년 연초부터 민찬기 장로님께서 부학장님 직책을 맡아 보시면서 강의뿐만 아니라 농장일도 맡아 주고 계십니다. 민장로님의 인도로 학생들이 성실히 협력해 주기에 학교 마카다미아 나무들이 눈에 띄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남아공 임마누엘신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

학장이신 김익진 목사님께서 독일에서 사역을하시는 관계로 학교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리더십과 책임감으로 솔선수범 하시는 민장로님을 부학장님으로 임명 하였습니다. 올해는 한국에서 온 영어 연수생은 한명도 없지만, 다음 달 초에 한명이 오기위해 유학 비자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잠비크 학생들은 매년 여권, 비자 그리고 교통비 등의 문제로 학기 중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도 다섯 명의 신입생들이 비자문제로 두 달이나 입학이 늦어져 다음 주에 오기로 되어있고,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방학기간 동안 집으로 돌아간 모잠비크 학생들이 개강일이 훨씬 지나서야 학교에 돌아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입생뿐만이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도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새벽 기도모임에 익숙하지 않고 힘들어 하는 신학생들로 인해 고민하며 기도를 많이 했는데,올해는 학생들이 새벽기도를 당연히 여기고 동참해 주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들과 학교 스텝들 간에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학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또한 작년 신입생으로서 워크 타임(작업 시간)등에 불만을 갖고 있던 학생이 변화되어,올해는 다른 학생들의 존경을 받으며,신학교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감사의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이 학업에도 더 충실하며, 매사에 감사와 기쁨으로 지내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 학생들 한 사람 한사람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심을 감사드립니다.

학교재정이 예년보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필요에 따라 여러 방법을 통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와질란드 박상원 사모님과 신학교의 식품을 담당하시는 김순경 선교사님은 '올해는 정말 은혜의 해이고 그럴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자주 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필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필요가 따라오게 하는 삶,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특권을 선교사역에 동참하시는 동역자 여러분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임마누엘 신학대학 2012년도 신입생들]

BRIGHT SIVE DLAMINI PIUS NTOKOZO MGCINI

ANTONIO FERNAND RAMALHO ALBERTO PAUL SIMANGEL

아프리카 선교 비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들은 1985년부터 아프리카대륙 선교비전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구령운동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 그리고 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구원을 위하여 신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 로 훈련시켜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통하여 아프리카에 주님의 일들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물질 헌신과, 이곳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 동역자님들의 순종과 열심히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에 20여 년 동안 함께 사역하던 말라위 현지 목사님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오던 지인 세분이 병원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수년 동안 복음을 받아드리지 않았던 분들이 황찬규 목사님(병원선교회 명예회장)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지난 주 주일 설교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자”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는 남은여생을 주님 뜻대로 살면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부르시는 날까지 더 열심히 선교하다가 주님 따라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영원한 안식을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아프리카 사역이 크게 성장 확대 되었습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 목회자가 대우를 받고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으나 선교는 확대 할수록 여러 나라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고 재정적인 필요가 더 많이 요구되기에 긴장해야 합니다.
일부 동역 자님들은 “아프리카 선교는 재정적으로 풍족하기 때문에 가난한 선교지로 선교비를 보내야 되고 아프리카 선교는 나의 비전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오던 아프리카선교를 중단 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모두가 우리들의 선교지이며 만민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선교는 불쌍한 선교사를 돕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꿈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도 아니며,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멀리서 기도드립니다.

2012년 3월24일 아프리카 스와질란드에서 김종양선교사드림

•기도 제목

1. 우리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김재춘, 김순경, 민찬기, 김희상, 김동근, 송유진, 정은영, 이문균, 이민기, 현광섭, 이연희, 조성호, 이윤정, Fritz, Williams, Coztzer, Ivan 선교사님들의 영육 간에 강건함을 위하여

2. 중남부 아프리카 7개국에서 ACM 대표회장들로 개척된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말라위 Yasulu, 모잠비크 James, 스와질란드 Mhlanga, 케냐 Allex, 콩고 Ngowie, 잠비아 Barton, 남아공화국 Dlamini목사님들의 영육 간에 건강을 위하여

3. 우리들은 남아프리카 임마누엘 신학교와 스와질란드 성실고아원의 학생들과 고아(100여명)들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하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십 여명의 현지인 동역자들에게도 물질을 지원하며 이들을 통하여 복음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선교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